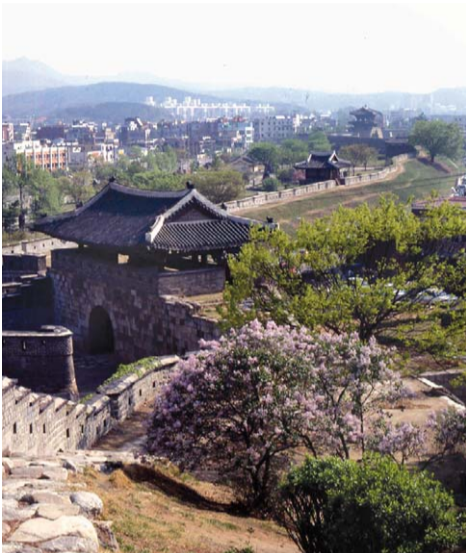


'명분' 보다 '실리' 택한 댓가로 희생된 선각자



소현세자 - 소경원
소현세자 1612~1645 (34세)



수원성 화서문.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과학서적을 참고해서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성 건축에 기여했다(사진 위). 외로운 소경원에도 방문객이 있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목복균씨(왼쪽 끝)는 오랜 지인을 만나듯 반긴다.

소경원(昭慶園)은

조선 16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원이다. 처음에는 소현묘라고 했으나 고종 때 소경원으로 격상되었다. 서삼릉 능역 안에 있다. 사적 제200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4 면적 21만7701㎡ (6만5970평)

소현세자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능이 아니라 원이다. 518년 역사를 가진 조선 왕조는 27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 왕과 왕비가 있다. 왕, 왕비의 무덤은 능(陵)이다. 세자, 세자빈, 후궁의 무덤은 원(園)이다. 세력이 없는 후궁이나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나 공주, 폐서인이 된 재연산군, 광해군, 폐비 윤씨 등의 유족은 묘(墓)란 이름에 만족해야 한다. 조선 왕조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기이다. 그 중 능이 42기(북한 소재 2기), 원이 13기, 묘가 64기이다.

세자는 다음 대통을 보장받은 예비 대권주자이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에 대권을 날려버린 경우가 있다. 양녕대군, 소현세자, 사도세자 등이 그렇다. 소현세자는 예지를 갖춘 선각자였으나 권력 탐구에 희생되었다. 그의 일생이 애석하여 추모의 정을 담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간다.

삼전도의 치욕은 봉림대군은 물론 소현세자에게 반드시 씻어야 할 원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불모 생활을 겪으면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현실 인식은 완전히 같았다. 소현세자는 청과 조선이 처한 객관적 현실, 즉 국제관계의 역학을 인정했다. 청은 이미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실력자였고 조선은 청이 주도하는 영향권 내에 편입돼 있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려면 청과 맞서 이길 힘이 필요했다. 그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청과 대립하는 것은 수레를 막아선 사마귀 꼴, 즉 당당거울(堂堂拒敵)이다.

청이 조선에 요구하는 것은 이전의 중국 왕조들이 요구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조공이란 이름의 형식적 주종 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조공 대상이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든 만주족이 세운 왕조든 현실적으로 볼 때 오십보백보다. 중원을 청이 장악한 이상 조선은 그 질서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모 생활을 통해 체득한 소현세자의 현실 인식이었다.

소현세자는 당시 심양에 속소를 신속해 심양관이라 불렀다. 청나라는 심양관을 통해 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현안을 처리하려 했다. 인조도 청나라와 직접 접촉을 꺼렸으므로 양국간 현안은 소현세자의 몫이었다. 소현세자는 양국의 접점 지역에서 양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양관은 주종 조선대사관이며 소현세자는 주종대사였던 셈이다.

소현세자가 불모로 가 있었던 기간은 장장 8년이 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중후반과 30대 전반을 불편한 타국에서 불모생활로 보냈다. 소현세자는 인조 22년(1644) 2월, 34세의 나이에 고국 조선에 돌아왔다.

소현세자의 귀국 집 보따리 속에는 많은 종류의 서양 과학서적과 지구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불모 생활을 하면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식을 갖게 되었다. 세상이 더 이상 성리학의 시대가 아님을 심양과 북경을 오가며 알게 되었다. 이때 소현세자가 가져온 과학서적이 훗날 수원성 축성 때 정약용으로 하여금 거중기를 만들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소현세자는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는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더 이상 청은 원수가 아니었다.



홍살문 앞에서 본 소경원 전경. 정자각은 불타고 흔적만 남아있다.

아버지 인조 청나라에 대한 공포로 의심과 냉대 학질 발병 후 갑작스런 죽음...독살 의혹 뒤따라

청은 원수의 나라였지만 주자학의 관점만 버린다면 청은 실리에 따라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상대적인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가슴 가득 포부를 안고 귀국한 소현세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였다. 부왕 인조에게 있어서 소현세자는 자신을 대신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생하다 돌아온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반청 노선에 반기를 든 정적이자 원수인 청의 회유에 넘어간 반역자일 뿐이었다.

더욱이 인조는 아들인 소현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것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공포였다.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임금으로 내세워 자신을 폐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였다. 인조가 세자를 의심하는 것을 눈치 챈 일부 정치

세력이 세자를 모함하고 나섰다. 인조의 후궁인 소옹 조씨도 그 중 한 세력이었다. 그녀는 세자와 강빈이 인조를 내쫓고 즉위할 것이라고 참소했다. 세자에 대한 의심과 주위의 참소는 9년 만에 귀국한 세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조는 심지어 환국한 세자에 대한 신하들의 하례조차도 막을 정도로 그를 냉대했다. 소현세자는 부왕의 이런 냉대에 상심했으나 그 원인을 분석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귀국한 지 두 달 만에 불거진 재이 되었기 때문이다. 낯선 이역만리에서 만 8년간이나 갇혀 지낸 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이유는 없었다. 당연히 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뒤따랐다.

세자의 발병일은 인조 23년 4월 23일이었다. 병명은 화질이었다. 세자는 발병 3일 후인 4월 26일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인조실록>은 그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세자는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얼굴의 입술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먹뭍(소름) 때 시체의 얼굴을 싸는 검은 형짚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는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증거다. 이 기록은 당시 염습에 참여했던 진원군 이세완의 부인이 시신의 이상한 상태를 보고 나와 말한 것을 토대로 적은 것이다. 그녀는 인열왕후(소현세자의 어머니)의 서제(庶弟)였기 때문에 염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현세자가 독살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를 죽인 이는 누구일까?

<인조실록>은 세자의 시신이 독살당한 사람 같았다는 사실을 '상인(宗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낮다. 독살에 인조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그 하나가 소현세자를 치료한 의관 이형익에 대한 처리 문제다. 이형익은 인조의 후궁 소옹 조씨의 어머니 집을 왕래하던 관으로 추한 소문이 많던 자였다. 세자가 이형익에게 침을 맞은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양사는 이형익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호안이 심하여 몸이 떨리는 증세도 판단하지 못하고 날마다 침만 놓았다"는 것이 탄핵 이유였다. 조선시대에 왕이나 세자가 죽으면 의관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국문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인조는 끝내 이형익을 비호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야사도 있다. 소현세자가 청에서 돌아와서 인조 앞에서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 늘어놓고 자랑하니 인조의 눈에 광기가 돌았다. 청태종이 하사한 버투를 자랑하던 활나에 인조는 그 버투를 소현세자의 머리에 던졌다. 직격탄을 맞은 세자는 시름시름 앓았고, 약대에 독을 타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조가 세자 독살에 관련돼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소현세자의 후사 문제다. 사망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 중 큰 아들 석철은 원손(元孫)이었으므로 당연히 그가 세손으로서 세자를 대신해 인조의 뒤를 이어야 했다. 그러나 인조는 종법을 어기고 원손 석철이 아닌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귀양 보내 그 중 두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했다. 세자빈 강씨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소현세자의 꿈과 좌절은 단순히 한 세자의 꿈이 좌절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가 좌절된 것이었다. 소현세자가 아담 살을 만나고 서구 세계에 눈을 뜬 것은 조선이 개국한 1876년부터 무려 232년이나 빠른 1644년의 일이다. 이때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처참했던 근대사의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뚜렷한 가정(假定)이 없다. 서늘한 교훈만 있다. 글=이우상(소셜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 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선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곁고 복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책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책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책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책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신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미르오**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전·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지구산업

www.bangaro.com / 조립식평상

TEL (063)323-3010~1 / FAX (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광영호

전품목부가세 별도 전국대리점 모집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냐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협장